

제7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

1. 소통과 상생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
2. 청렴, 신뢰의 공직사회 조성
3.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
4.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제7절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

1. 소통과 상생협력의 열린 도정 구현

1-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

우리 도에서는 각계각층의 도민과 폭넓은 소통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2014년부터 도지사가 농어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 생산현장 종사자와 도서·벽지 마을, 사회복지 시설,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시로 소통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광역단위 직능별 사회단체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라남도 새마을회 등 36개 주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를 출범시키고,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국간 공동 소통과제를 발굴하고 협력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2014년 10월에 전 실국 주무팀장이 참여하는 「도민소통 실국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국에서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시책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해 당사자, 관련 단체,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을 시행하는 등 오프라인 소통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추진부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소통기획팀장 우홍섭, 담당자 김송원

나. 호남권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

향우회 등 호남권 출향인사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퇴직자는 「호남미래포럼」, 「무등산 구락부」 등에서 주관하는 정책세미나, 신년 하례식 등의 행사에 도지사가 참석해 소통을 실시하였고, 현직은 중앙부처 근무 향우 공직자, 중앙언론사 근무 향우 언론인, 서울·경기지역 향우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통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에 있는 향우회의 정기총회, 체육행사, 송년회, 이·취임식 등 행사에 도지사가 직접 참석하거나 영상 메시지, 인사말, 표창 등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대회, 축제 행사, 계절별 관광지 등을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소속 22개 시군의 향우회원과 주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소통기획팀장 우홍섭, 담당자 김송원

다.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강화

안전·자원봉사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민간 사회단체 등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26개) 설립과 비영리 민간단체(540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운동단체 등 9개 단체에 2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수한 단체의 활동 회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민간 사회단체 소통·공감 연찬회에 1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단체의 건전한 공익활동에 관한 강좌를 듣고, 단체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2015년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5건, 변경 32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24건, 변경 50건을 처리하였다.

추진부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민간협력팀장 장정희, 담당자 이인수, 한형선

라.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반 운영

민원행정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원처리에 보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도민소통실에서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반을 운영중에 있다.

또한 도민들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도 홈페이지에 도민상담실 예약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지역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추진부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소통기획팀장 우홍섭, 담당자 김송원

마.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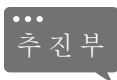
우리 도의 2015년도 12월말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416,242 명으로 전체 도민의 21.8%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1회 이상 봉사자는 161,902명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대비 38.9%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015도에는 광주 하계 U대회, 세계 담양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 박람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통역, 경기보조, 안내 등 9개 분야 2,5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대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였다.

금년 9월부터는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동세탁차량을 지원받아 5개 군 23개 마을을 방문하여 소외계층, 홀몸 노인 등의 침구류를 세탁하고, 지역 자원봉사와도 연계해 이·미용, 칼 수선, 주택 수리 등 통합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도청 공직자는 기업·단체 등과 연합하여 각 기관이 가진 재능을 활용한 재능 나눔 활동을 3개 군 11개 마을에서 실시해 지역 사회에 온정을 전하는 한 해였다.

또한 전남도청 자원봉사단을 12월에 결성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봉사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민간협력팀장 장정희, 담당자 제갈래원, 이승화

바. 생활현장 모니터단 운영

도민의 주변 생활 속에서 국·도정 시책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원메신저는 2006년부터 도 주관으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008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위촉·운영해 오고 있다.

제8기 민원메신저는 150명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10월,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220명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활동하도록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원메신저는 도내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헌신·봉사하는 도민을 위주로 선발하여 140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고, 자긍심 고취와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2회, 권역별 간담회 8회, 소권역별 간담회 8회, 임원 간담회 2회를 실시하였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 등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생활불편 제안 115건,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33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자긍심 고취와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3회, 임원 간담회 2회, 우수 활동모니터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다.

추진부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민간협력팀장 장정희, 담당자 제갈래원, 이승화

사. 고객만족도 조사

도 산하 직원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CS) 수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공무원의 변화동기를 부여하고, 고객중심의 행정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7~8월과 10~11월 2회에 걸쳐 1년 동안 도청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고객 및 기관고객을 각 실과에서 제출된 고객명단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였고, 조사내용은 편익성, 친절성, 신뢰성, 전문성, 공정성 등이다.

조사결과는 2012년 88.8점, 2013년 90.8점, 2014년 91.3점, 2015년 91.5점으로 점진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불만족 요인은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추진부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민간협력팀장 장정희, 담당자 이인수

1-2. 동부지역 소통 및 민원기능 강화

가. 도민이 체감하는 열린행정 추진

우리 도에서는 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동부출장소 직제(4급, 3담당 17명)를 동부지역본부 겸 환경국(3급, 3과 11담당 65명)으로 격상·신설하여 일반민원 및 전라남도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였으며, 2014년 10월 20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민선6기 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 도민소통을 위해 2014년 12월 8개분야 101명으로 동부지역본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10회에 걸쳐 정기회와 수시간담회를 통해 총 43건의 의견 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도정에 반영하였다.

매주 수요일 ‘현장 방문의 날’ 운영으로 160개 직능단체와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역할 홍보와 함께 37건의 건의사항 수렴 및 관련 실과에 건의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단체들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찾아가는 동부지역 ‘열린 강좌’를 개설하여 12월까지 5개 시군에서 1,100여명에게 인문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도정을 홍보하였다.

동부지역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복지관에 김장김치 및 도시락 배달, 배식봉사, 지역 대표기업인 광양제철소 도배봉사단과 함께 모자가정세대에 도배 봉사를 실시하고, 2015년 연말에는 4개 군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 수급자 4가구에 사랑의 연탄 1,200장을 배달하였다.

추진부

동부지역본부 총무과장 안기권, 소통관리팀장 조장훈, 담당자 박나리, 노천우, 박준영

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정 홍보 추진

2014년 하반기에는 동부지역본부 개청 홍보 캠페인 방송 300회, 2015년에는 동부지역 TV·라디오에 동부지역본부 기능 및 역할 홍보 1,870회, 라디오 정기인터뷰 22회, 신문·잡지 인터뷰 및 홍보 28회 등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 인식 강화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부권 110개 시군 이·통장 회의에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이·통장 등 3,000여명에게 동부지역본부 역할을 소개하고,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홍보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배포, 동부지역 영화관 3개소 스크린 활용 홍보 등 주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

동부지역본부 총무과장 안기권, 홍보팀장 김수찬, 담당자 황준철

다. 동부권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

2015년 4월 동부지역본부 위임민원을 26종에서 83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임되지 않은 민원도 접수하여 본청으로 전달처리 하는 등 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민원불편 완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동부권 7개 시·군에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민원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간호학원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접수제’ 시행 등 동부권 주민들이 소통·공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

동부지역본부 총무과장 안기권, 동부민원팀장 서상철, 담당자 강원구, 김철홍, 이시은

1-3. 즐거운 변화를 실현하는 도정 홍보

가. 홍보 매체별 맞춤형 도정홍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도정의 비전과 철학을 신속히 전파하고 활기, 매력, 온정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신문, 방송, 통신 등 홍보매체별로 홍보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광주MBC와 목포MBC, 여수MBC, KBC광주방송, KBS광주 등 지역 지상파 방송과 광주CBS, 전남CBS 등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하여 활기, 매력, 온정의 전남 만들기과 기초질서 지키기, 섬과 숲의 전남 만들기 등에 캠페인 방송으로 홍보에 주력해오고 있으며 전국 단위 MBC, KBS, SBS,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남도의 사계와 섬·숲·해변을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남도로 옮기게 하였다.

또한, 목포·여수MBC, 광주CBS 등 10개 라디오 방송 도정홍보 고정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간 단위로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새로운 제도, 공지사항 등을 대담식으로 매주 3~4회 방송하여 도민들이 생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 광주일보, 목포투데이 등 전국·지역 일간지와 주간신문, 잡지 등 지면을 활용하여 도정홍보와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여 2대 브랜드 시책인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적극 홍보하였다.

그 밖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터미널과 부산터미널, 무안 국제공항, 상해 홍차오 국제공항 등에 와이드컬러 광고판을 설치하여 전남의 자연경관과 유명 관광지 등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몫을 하였고

우리 도의 국제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 홍보CF를 제작하여 KBS

월드와 아리랑TV에 노출시켜 국외에 홍보하였으며 국내는 뉴스채널과 KTX, 항공기, 극장, 수도권 대형 전광판을 이용하여 전남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적극 홍보하여 도 브랜드 강화에 힘썼다.

또한 도정홍보 극대화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요 도정 소식을 1일 7~8건씩 TV, 라디오방송 등 22개사와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등 34개사를 통해 홍보하였다.

아울러 실·국 현안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추진부

대변인 조용익, 홍보기획팀장 강종철, 담당자 서희정,
홍보지원팀장 윤영주, 담당자 방준환, 양완길

나. 도민 명예기자 운영

다양한 도정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생생한 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도정에 적극 반영해 가기 위해 도민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명예기자의 주된 활동은 월 2회 발간되는 도정 소식지인 ‘생명의 땅 전남새뜸’을 통해 지역 및 향우 소식, 도정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기관단체 동정, 생활미담, 도내 숨은 관광자원 등을 취재해 연 1천여 건을 투고하고 있다.

도정 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 주요업무보고서, 뉴스레터 등 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도민명예기자에게 전달해 도민명예기자에 의한 입소문 마케팅으로 도민의 도정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를 하고 있다.

2000년 주부명예기자로 시작해 2011년 향우 명예기자 영입으로 지역 22개 시·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120명의 기자단은 도정 홍보 및 취재 활동 등 기자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랑 나눔, 재능기부 등을 통해 도정 홍보메신저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추진부

대변인 조용익, 홍보기획팀장 강종철, 담당자 오미경

다. 도정 소식지(전남새뜸) 발행

전남새뜸은 다양한 지역소식을 게재해 마을회관, 경로당,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전·현직 의원(국회, 광역, 기초), 기업인, 타시도 및 해외 향우회 등에 월 2회 6만부를 발행·배포함에 따라 도정 홍보 보급효과가 매우 큰 내부매체이다

지속적인 도정 홍보 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 언론과의 차별화된 영역 구축을 위해 2015년에는 발행 방식 개선을 통해 독자의 시선을 집중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비주얼 편집 방식을 도입하고 글자 크기 확대, 용지지질 개선 등과 함께 타시도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틈새소재와 양질의 미래지향적 콘텐츠, 저명인사 기고 등을 통해 소식지 품격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진부

대변인 조용익, 홍보기획팀장 강종철, 담당자 오미경

라.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운영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http://www.jeonnam.go.kr>)는 1997년 10월

30일 최초로 개설하여 지금까지 4번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와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5년 4월 홈페이지 개편사업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시책업무 담당자와 실국 서무담당자 2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누리집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콘텐츠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5월부터 51개 전 실·과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콘텐츠 재배치와 개편 누리집에 게재할 새로운 자료를 제공받아 누리집에 반영하였으며, 수시보고회 등 3차례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용자 중심의 메인화면 디자인을 결정하고 실과 의견이 반영된 누리집 개편 내용을 시연하였으며 2015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에 개편된 누리집은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누리집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모바일·인터넷 사용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어떠한 기기에서도 최적화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였다.

향후 도 누리집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라남도 누리집 온라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도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구현하여, 열린 행정 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부터 도정소식과 관광문화 등 수요가 많은 정보를 전라남도@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주 1회 누리집 회원과 수신희망자 3만 5천 명에게 메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 누리집 운영 현황(2015.11월말 기준)】

- ▶ 최초구축 : 1997. 10. 30. / 개편(4회) : 2002. 1, 2006. 2, 2009. 2, 2015. 10.
- ▶ 접속건수 : 일평균 11,830명 (12년 12,501→ 13년 12,512 → 14년 10,092)
- ▶ 회원 수 : 25,210명
- ▶ 제공정보 : 사이버도지사실, 참여와소통, 정보공개, 전자민원 등 1,039항목

추진부

대변인 조용익, 뉴미디어팀장 정창모, 담당자 홍경숙

마. 전라남도 소셜미디어 운영

뉴미디어의 다양화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SNS(Social Network Service) 매체를 통해 네티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도정 홍보를 위해 2010년 7월 대표 블로그 개설, 8월 트위터 개설, 2012년 1월 페이스북 개설, 2014년 3월 유튜브를 개설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청장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토티를 개설하여 도정 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매체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급성장한 모바일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2014년 8월 뉴미디어팀 조직을 신설하고 도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감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홍보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농업박람회,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전라남도의 역점 시책인 「가고 싶은 섬」, 「숲속의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홍보하여 매력적인 '생명의 땅 전라남도' 이미지를 홍보하고, 전남의 볼거리와 먹을거리에 맞춘 콘텐츠 발굴·홍보로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도내의 각종 행사, 실시간 리포트, 미담사례 등 도내 곳곳을 발로 뛰면서 생동감 있는 현장을 취재하고, 전남의 독특한 멋과 맛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파하는 77명의 SNS 기자단과 15명의 블로그 기자단은 SNS를 통해 전남의 매력을 알리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다.

전라남도 페이스북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풍부한 콘텐츠 제작과 열정적인 기자단 활동의 결과로 제5회 대한민국 SNS대상 광역지자체 올해의 페이스북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기존 SNS 매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보다 많은 네티즌과 소통하고 전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일상을 재미있게 풀어낸 웹툰, 전남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 프로모션 제작·홍보 등으로 친근하면서도 재미있는 전남의 멋과 맛을 전파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의 실제 생활에 공감이 가는 기상, 재난, 안전정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삶에 한 발짝 다가서는 맞춤형 홍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표2-284> 전라남도 소셜미디어 운영매체 활용성과

종 류	운영현황 및 주요성과
블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점정보 : 주요정책, 문화, 여행, 일상정보 등 (2010. 7. 개설) ▪ 주 소 : blog.naver.com/greenjeonnam ▪ 누적 방문자 3,467,804명, 누적 콘텐츠 2,805건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점정보 : 도정 핫이슈, 관광, 특산품, 재난정보 등(2012. 1. 개설) ▪ 주 소 : www.facebook.com/jeonnam.kr ▪ 좋아요 16,538건, 누적 콘텐츠 1,653건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점정보 : 도정뉴스, 축제·관광, UCC 등(2014. 3. 개설) ▪ 주 소 : www.youtube.com/user/greenjeonnam1896 ▪ 누적 조회 수 37,748건, 누적 콘텐츠 447건
트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점정보 : 보도자료, 관광, 복지 정보 등(2010. 8. 개설) ▪ 주 소 : twitter.com/greenjeonnam ▪ 누적 팔로워 9,899명, 누적 콘텐츠 5,608건
카카오 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점정보 : 대규모행사, 관광, 생활공감정보 등(2015. 7. 개설) ▪ 주 소 : story.kakao.com/ch/jeollanamdo ▪ 소식받기 회원수 4,668명, 누적 콘텐츠 257건



대변인 조용익, 뉴미디어팀장 정창모, 담당자 김해기

바. 영상콘텐츠를 통한 입체적 도정홍보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멀티미디어형 도정홍보를 위해 전라남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http://www.jntv.go.kr>)를 구축하여 2002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에서는 매주 주요시책, 의정활동, 주요행사, 관광 및 축제 등 주요 도정과 시군소식을 생생한 현장 중심의 15분 내외 영상물로 주간뉴스를 제작하여 송출함으로써 열린 도정과 전남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서와 산간 오지의 도민 및 네티즌들에게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건강, 취미, 예술, 컴퓨터, 어학 등의 문화교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영상 문화교양 강좌를 상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고장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문화유산, 친환경 농업, 가고 싶은 섬과 숲 등 아름다운 영상을 발굴하여 전남을 찾아가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인터넷방송을 통해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와 「생태환경 사진공모전」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보유중인 아날로그 형태의 사진필름 98만여장과 영상테잎 4천여개에 대한 디지털 DB화 구축사업을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DB화 구축이 완료되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필름으로만 존재했던 도정 시청각 기록물들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지게 되어 자료의 단순한 보관·보존을 넘어서 역사문화 자산으로 활용가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진부

대변인 조용익, 영상홍보팀장 박창선, 담당자 이광수, 박현섭, 장승규, 정경이

1-4.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가.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평가제도 운영

우리 도에서는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을 도민들께 알리고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은 2014년 9월에 전문가 위원 20명과 일반도민 위원 30명 등 총 50명을 위촉한 후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은 이낙연 도지사의 공약 76개 사업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특히, 기존 공약이행 주민평가단을 도민평가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행사 및 주요 업무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책평가팀장 서형빈, 담당자 박익태

나. 내실있는 제안제도 운영

우리 도는 도민의 참신하고 실용가치가 있는 제안을 도정에 반영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도민의 도정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편의제공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인터넷 누리집(국민신문고, 전라남도), 우편 등을 통해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정 주요 현안과제를 주제로 도정발전 방향 및 비전 등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도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호남선 KTX를 활용한 관광활성화’와 ‘해양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22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도정시책에 반영했다.

또한 제안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2015. 5월)해 우수제안 상금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안자 보상을 확대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한 도민제안을 경진대회를 통해 심사했다.

2016년에는 도정현안에 대한 공모 제안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해 도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창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책개발팀장 박우육, 담당자 김수화

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전남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과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 2004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정 신규시책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말 기준 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의 학계, 정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여성계, 농어업인, 광주전남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249명(2015년 12월말 현재)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이다.

위원장은 목포대학교 박종철 교수, 부위원장은 순천대학교 이기웅 교수가 2014년 10월부터 맡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총괄위원회 이외에 투자유치, 전략산업, 관광문화, 농업, 해양수산, 보건복지, 여성, 지역개발, 인재육성,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11개 전문위원회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고문 3명과 정책특별보좌관 8명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정책위원회는 2015년도에 상·하반기 전체회의 등을 포함해 총 37회(전체회의 2, 분과별회의 35)의 자문활동을 통해 ‘스마트 드론의 도정 접목방안’ 등 62건의 정책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에서는 정책위원들의 정책제안과 자문내용을 도 시책에 반영하고, 분과별 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그 기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문·제안 내용에 대한 도정반영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해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집합회의 이외에도 워크숍, 현안사업장 방문, 정책위원회 전용 사이트, 서면, 전화, E-mail 등 자문방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책개발팀장 박우욱, 담당자 나재영

라.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성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도 누리집에 정책토론 코너를 개설하고,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5년 4월 운영계획을 수립 후 토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5월 과제선정심의회 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후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105건의 토론을 진행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평가에서도 전국 지자체 1위를 기록하는 등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선 6기 중점 시책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도민이 직접 도민의 시각에서 공공정책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청년 시책 수립에 적용하였다.

2015년 5월 운영방안 논의를 거쳐 도민·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팀을 출범하였고, 행정자치부 주관 국민디자인 정책 발표대회에서 집중육성과제로 선정되어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자료수집·정책구체화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위한 유스워크센터 구축, 청년펀딩 운영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설계하였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부3.0 팀장 주상현, 담당자 장종국

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2011.7.27.)해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는 2년(2015.7.9.~2017.7.8.)으로, 위촉직 53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1)으로 구성 운영중으로

매년 주민참여위원의 역량 강화와 참여예산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하여 도민 설문조사와 주민참여위원 의견 수렴을 통해 도 재정투자수요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예산편성 시 역점투자사업 및 과제별 투자확대 사업, 기타 도 재정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도민이 건의한 사업(10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3회 개최하였는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건의사업 심의, 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및 분과위원회별 건의사업 심의, 전체위원회는 예산편성 방향 및 건의사업을 최종 심의 제출하여 2016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3건에 36억원이 반영되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예산총괄팀장 김현옥, 담당자 배성진

1-5. 도의회와 협력체제 구축

가. 제10대 도의회(2014. 7.~ 2018. 6.: 4년) 구성

제10대 도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52명과 비례대표 6명을 포함한 총 58명이 선출되어 2014년 7월 7일 개원식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개원당시 도의회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52명, 새누리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전반기 원구성은 2014년 7월 7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에 명현관 의원, 부의장에 윤시석 의원과 장일 의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7개의 상임위원회(의회운영, 기획사회, 안전행정환경, 경제관광문화, 건설소방, 농수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쳤으며, 이들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도의원 정수는 58명인데 2015년 12월 31일 기준 도의원 현원은 57명이다. 결원 1명은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2014.12.)에 따라 통진당 비례대표 1명이 퇴직하여 발생하였다.

<표2-285>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단위 : 명)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사회	안전행정 환경	경제관광 문화	건설 소방	농수산	교 육
위원장	7	송형곤	강성취	정영덕	서정한	이용재	김효남	김탁
위원수	66	10	9	9	9	10	10	9

※ 위원수에는 의장은 미포함, 의회운영위는 각 상임위원 1~2명으로 구성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의회협력팀장 송태현, 담당자 박희자, 강성규

나. 도의회 회기운영

1) 운영 개요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기는 의회가 법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연2회 정례적으로 집회되는 정례회와 필요시 수시로 집회되는 임시회로 구분된다.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30일 이내로 하되,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소집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7일로 정하고 있다.

2) 운영 실적

제10대 도의회의 회의개최는 총 14회(정례회 4회, 임시회 10회), 총 개최일수는 221일(정례회 118일, 임시회 103일)이었고, 본회의 및 상임위별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전처리 등을 위한 회의 일수는 221일이었다.

한편, 전남도의회의 2015년 동안 회기운영 실태를 분석해보면,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4일 동안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현안을 처리하였다.



정책기획관 김명원, 의회협력팀장 송태현, 담당자 박희자, 강성규

다. 의안처리 실적

지난 2014. 7월부터 2015. 12월까지 도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442건으로 조례안 203건, 예산 및 결산안 16건, 승인 및 동의안 61건, 건의 및 결의사항 54건, 기타 108건이다. 안건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이 386건, 수정가결이 46건, 철회 4건, 부결 2건, 미처리 4건으로 나타났다.

<표2-286> 의안접수 내역(2014. 7.~201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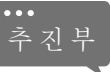
(단위 : 건)

합 계	조 례			예산 및 결 산	승인 및 동 의	건의 및 결 의	기 타
	소 계	의원 발의	단체장발의				
442	203	111	92	16	61	54	108

<표2-287> 의안처리 결과(2014. 7.~2015. 12.)

(단위 : 건)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미처리
		가 결			부 결	폐 기	철회	기 타	
		원 안	수 정	대 안					
442	438	386	46	-	2	-	4	-	4



정책기획관 김명원, 의회협력팀장 송태현, 담당자 박희자, 강성규

라. 도의회와 소통 · 협력 강화

민선6기 취임 이후 지역현안의 신속한 조정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도와 도의회와의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도정 전반에 대한 논의 및 소통을 위해 양 기관을 대표하는 도지사-의장단 간의 정례회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도지사-의장단 간의 정례회동은 매 분기별 1회 정도 신축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회동 안건은 집행부나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2014년 11월 10일 최초로 정례회동이 개최 되었고, 도의회 조직 개편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5년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례회동을 가졌고,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호남권 KTX 개통 대응,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례회동 외에 각 실국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및 도의원에게 주요 업무보고, 도 주관 행사 초청, 당면 현안 설명 및 자료 제공 등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의회협력팀장 송태현, 담당자 박희자, 강성규

마. 도의회 정책제안의 도정반영

매년 도정 전반에 대한 도의회의 도정질문(4월, 9월)과 행정사무감사(11월)를 실시하여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의 발굴 및 반영을 통해 도정 발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역

2015년도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100개 기관 수감결과 총 393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의회운영위원회가 13건, 기획사회위원회가

73건, 안전행정환경위원회가 52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83건, 건설소방위원회가 30건, 농수산위원회가 59건, 교육위원회가 83건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권고를 요하는 사항이 2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21건, 주의 8건, 개선 93건, 건의사항이 23건으로 나타났다.

<표2-288>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수 감 기 관 수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사	출연기관	기 타 (의회, 교육청)
100	16	16	9	1	21	37

<표2-289>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감사 지적건수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사회	안전 행정 환경	경제 관광 문화	건설 소방	농수산	교육
2015년		393	13	73	52	83	30	59	83

<표2-290>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지적내역

(단위 : 건)

위원회별	구분	구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의·기타
계		393	21	8	93	248	23
의회운영		13	-	-	8	5	-
기획사회		73	6	-	23	38	6
안전행정환경		52	3	-	15	31	3
경제관광문화		83	2	-	20	55	6
건설소방		30	2	1	11	14	2
농수산		59	6	2	3	42	6
교육		83	2	5	13	63	-

2) 도정에 대한 질문과 처리실태

민선 6기 이후 도정질문은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질문의원은 44명으로 전체의원의 77%이다. 질문건수는 총 241건이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기획사회분야 46건, 안전행정환경분야 27건, 경제관광문화분야 71건, 건설소방분야 23건, 농수산분야 66건, 교육분야가 8건으로 나타났다.

도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집행부 약속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의회 도정질문·답변시 약속사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10대 도의회 개원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속사항 관리 건수는 총 37건이며, 이중 9건은 완료되었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표2-291> 제10대 도의회 질문내용 분석(분야별)

(단위 : 건)

총 계	기획사회	안정 행정환경	경 관광재	건설소방	농수산	교육
241	46	27	71	23	66	8

<표2-292> 실국별 도의회 약속사항 처리현황(제10대 도의회)

(단위 : 건)

구분	계	여성가족 정책관실	기획 조정실	일자 리정책 실	경 제 과학 국	자 치 행정 국	관 광 화 육 국	보 건 복지 국	농 립 축 산 식품 국	해 양 수 산 국	건 설 도 시 국	공 무 원 교 육 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동 지 부 연 부
약 속 건 수	38	2	1	2	3	5	3	2	9	6	2	1	1	1
완 료	9		1	2		1			4		1			
추 진 중	29	2			3	4	3	2	5	6	1	1	1	1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의회협력팀장 송태현, 담당자 박희자, 강성규

1-6.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운영

이낙연 도지사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광역단체장선거 후보 시절이던 2014년 5월 25일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소모적 경쟁보다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신(新) 영산강시대’ 상생발전정책 수립 등 7개 현안을 발표하고, ‘민선 6기 시·도 공동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 10월 1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등 14개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추진키로 하였다. 2014년 12월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15년 3월 23일 광주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등 신규 협력과제 4개를 추가로 발굴하였다. 2015년 10월 23일 전남에서 2015년 하반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자문위원 4명을 추가 위촉하고, ‘전남 도유지를 활용한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협력’ 등 신규과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주요성과로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개·보수와 행사지원, 공무원 파견 등을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여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하였으며, 제2남도학숙 건립을 위해 서울 은평구에 부지를 확보하여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장 협의회와 지역발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 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행정팀장 박환주, 담당자 황의철

나. 호남권정책협의회 운영

2014년 9월 호남권의 역사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보완·협조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호남권 시·도지사가 합의하여 광주·전남·전북이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6년 만에 재가동되었다.

2014년 10월 5일 전북에서 2014년 하반기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호남권 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공동 의제를 적극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 및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시·도민의 안전, 사회, 경제,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 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등 상생협력과제 12개를 채택하였다.

2015년 5월 29일 광주에서 2015년 상반기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1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협조’ 등 3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하였다.

2015년 11월 3일 전남에서 2015년 하반기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사업 공동 개최’ 등 10건의 신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채택하고, 호남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다짐하였다.

주요성과로는 3개 시·도의 68개 경기장을 활용해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로 치룬 국제행사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고, 2015국제농업박람회·2015국제 디자인총회 성공개최에도 적극 협력하였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서해안(군산~목포) 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3개 시·도가 같이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행정팀장 박환주, 담당자 황의철

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운영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 지역 간 교류협력 및 주민 상호 간 친선도모를 적극 추진하는 등 영·호남 화합은 물론 국민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지난 1998년 1월 8일 우리 도 주도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협력회의의 주요기능은 ①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동 ②영·호남 시도정 각 분야별 시책공조 강화 ③지역주민 상호 간 친선도모와 이해 증진 ④민간단체의 영·호남교류촉진(국민화합) 관련사업 지원 ⑤기타 영·호남교류촉진 및 동서화합, 국민화합에 필요한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8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8개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의장은 윤번제로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지금까지 총 11회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제1회는 1998년 10월 8일 순천 로얄호텔에서 개최하였고, 최근 제11회 회의는 2012년 1월 31일 경남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협력회의의 부의 안건은 대부분 ‘지방과 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합의문 채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안에 대한 촉구 및 건의사항 전달이며, ‘동서화합을 위한 기금조성·운영’ 등 8개 시·도 공동 협력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의 산하에 (재)동서교류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지난 2002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임원은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협력회의 의장이 소속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이사는 8개 시·도

업무담당 국장이 맡고 있다.

협력재단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개최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기금 조성은 총 30억 원으로 행정자치부가 14억 원을 부담하고, 영·호남 8개 시·도에서 각각 2억원씩 16억원을 출연하여 조성되었다. 기금운용은 이자수입으로 8개 시·도의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기금 보조금으로 배정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행정팀장 박환주, 담당자 황의철

라. 수도권 시·도 등과의 협력 강화

전라남도과 수도권 시·도와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상호 협력 사업을 발굴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서울시와의 상생교류를 위해 2015년 6월에 서울시에서 개최한 ‘지역상생포럼’에서 폐교 및 휴경지를 활용하여 귀농 희망자들에게 적응훈련 및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농장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하여 상생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교류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뜻을 같이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신산업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또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와의 상생협력은 2014년 11월 4일 국회에서 양 도의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서화합포럼’에서 ‘전남·경북 농·특산물 331장터 운영’

등 7개 협력과제를 제안하며 본격화되었다. 2015년 1월 26일 광주·전남·대구·경북 시도지사의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2015년 3월 10일 ‘전남·경북 도의회 간 상생발전 교류협약’ 체결, 전남·전북 공동장학기금 조성,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 등이 추진되면서 양 지역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며 공동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부3.0팀장 주상현, 담당자 지해근

2. 청렴, 신뢰의 공직사회 조성

2-1.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전남 실현

가. 사전 예방·면책적 감사활동 전개

1)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시행

2015년도에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이나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난관에 부딪힐 경우에는 직접 감사관실이 사업부서와 함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건설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2015년 운영실적은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시행자 및 부서 간 이견으로 9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던 지적확정측량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등 총 11건을 처리하였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사후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미래지향적 감사업무 분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6년부터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2015. 5. 1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편입·운영하여 인·허가 등 규제 관련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과 기업 활동에 실현가능한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감사를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2) 감사사례를 활용한 재발방지 체계 구축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도 누리집에 기관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별개로 공직자가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검색어로 유사 감사사례를 쉽게 열람·참조할 수 있도록 2015년 8월 ‘감사사례 원문 열람시스템’을 구축(사업비

720만원)하고, 11월부터 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718건, 2014.~2015. 11.)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본격 운영하고 있다.

3) 내실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2014년부터 고질적 비리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세외수입·지방재정시스템 등 8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착오, 부당처리된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 업무의 오류를 진단할 수 있는 자기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자기진단표를 2014년 54종에서 2015년 80종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그리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결과를 성과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균형성과관리(BSC)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2015년도에도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4)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찰

준공된 건설공사의 경우 하자 치유가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간전문가 19명과 함께 도, 시·군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62개 사업장(5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공사비 9억 원을 감액 및 재시공토록 하였고, 관련공무원 7명에게는 훈계조치, 현장기술자 4명에게는 벌점 부과, 책임감리원 15명에게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부실공사 예방 및 부정·부패 추방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건설 현장관리와 시공상태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관련 종사자들의 평가를 받는 등 건설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기술능력 부재, 재정상태 열악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2016년도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5) 도 본청 및 산하기관 계약사무 등 일상감사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공사·용역·물품 계약, 주요 정책의 집행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014년(일상감사 신청 206건) 대비 52%가 증가된 313건(공사 87건, 용역 66건, 물품 160건)의 일상감사 신청을 받아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추진부

청렴지원관 최형열, 감사총괄팀장 고동석, 회계감사팀장 임현근, 기술감사팀장 한병선, 청렴윤리팀장 선양규, 담당자 김영석, 이철행, 이은철, 조선희, 김용수

나. 사각을 방지하는 보완적 감사 실시

1) 종합감사

2015년도에는 우리 도 소속기관 및 시·군 등 총 21개 기관에 대하여 연인원 1,226명의 감사반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주의·시정 등의 행정조치와

175억원을 추정·회수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

소극적 행정으로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15명(징계 13명, 고발 2명, 훈계 200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한 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88명을 발굴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다.

2016년도부터는 2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종합감사를 3년으로 완화하는 반면, 감사기간은 2~3일 연장(시는 10일에서 13일, 군은 8일에서 10일)하여 감사의 사각이 없도록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 취약분야 특정감사

민간이전 경비집행 실태감사 등 4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8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의 행정조치 및 95억원을 추정·회수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2명(징계 6명, 고발 3명, 훈계 3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속칭 ‘대포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차량관련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선심성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5년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민간이전경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각각 29건과 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2억원과 34억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

추진부

청렴지원관 최형열, 감사총괄팀장 고동석, 회계감사팀장 임현근,
담당자 강인중, 윤근상, 김영석, 박성열

다. 손에 잡히는 청렴대책 수립·시행

1)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아쉬운 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발표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 11월 10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공직윤리담당’을 ‘청렴윤리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2015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사·용역·보조금·민원 관련자 550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사업비 15백만 원)를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5급 이상 고위공직자(399명) 부패위험성’ 평가(사업비 5백만원)를 실시하였다.

또한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여쭙는 ‘청렴 해피콜(1,404명)’, 청렴문구를 행정시스템에 게시하는 ‘청렴으로 여는 아침(1,906건)’, ‘청렴약속 서한문 발송(3,862건)’, ‘찾아가는 청렴교육(792명)’,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감사결과 및 청렴시책 공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청렴도 발표 결과 우리 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로 나타나 도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6년 연속 청렴도 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4,200여 전라남도 공직자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표2-29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청렴지수	8.38	8.32	6.90	6.87	6.87	6.89
순 위	12	15	14	13	13	16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청렴도 최하위권, 7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한다면 이는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된다는 절박한 각오로 전 공직자가 심기일전하여 진정한 청렴전담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 부패방지 시책 추진

도민에게 신뢰받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부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에 어느 때보다도 취약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의 근절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 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부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패방지 평가결과와 청렴도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평가지표별 성과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실천하고 월별·반기별 시책추진 사항 등을 전략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2014년 11월에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정부패 익명신고 시스템(레드휘슬)을 운영하여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여 2014년에는 2건, 2015년에는 24건을 접수처리하였고,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도 누리집에 연계하여 외부 기관 신고센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였다.

이 밖에 도가 추진하는 부패방지시책에 시·군이 함께 참여하도록 시·군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고 우수 시책을 발굴·전파하였다.

추진부

청렴지원관 최형열, 청렴윤리팀장 선양규, 담당자 채종욱, 이은철

라. 공직비리 차단과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

1) 공직감찰로 비리 차단

명절 전·후, 연말연시, 지자체장 해외순방, 하계 휴가철 등 상대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암행 감찰을 통해 총 5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여 주의·시정 등의 행정조치 및 3억 원을 추징·회수하는 등의 재정상 조치를 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 60명(징계 14명, 훈계 46명)을 문책 요구하였다.

공직자 징계발생 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음주운전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면허취소의 경우에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근절 홍보 등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적발자가 적발시점 기준으로 2013년 30명에서 2014년 20명으로, 2015년에는 10명으로 매년 10명씩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2) 고충민원 등 적극적 해소로 만족도 제고

고충민원 접수는 2013년 498건, 2014년 405건, 2015년 354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율은 2014년 57%에서 2015년 74%로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접수된 민원을 시·군에 이첩해 오던 것을,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우리 도가 직접 처리하는 비율을 높인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1위’, 감사원 주관 ‘민원처리 우수기관’의 영광을 안았으며,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에서 실시한 ‘2015년도 전라남도청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 62개 부서 중 감사관실

이 91.8점(전체 평균 88.1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도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눈높이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엄정한 심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권한 행사, 사전에 획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부정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 등 특정 분야 5~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 공무원 등 공직자 2,058명에 대한 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고위 공직자 327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등 외부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460명의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하는 등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추진부

청렴지원관 최형열, 공직감찰팀장 우정균, 청렴윤리팀장 선양규,
담당자 이정준, 김종원, 김판길, 허재훈, 윤중권, 주원영

2-2.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가. 효율적인 균형성과관리(BSC) 운영

조직의 미션, 비전을 부서단위 목표와 연계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도정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진사업의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 중심성과관리제」와 「자체평가」를 통합하여 2008년부터 균형성과관리(BSC)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4월, 2015년도 균형성과관리(BSC)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내부 자문 검증반이 도정 목표와 연계한 지표개발을 위해 지표고도화 컨설팅을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리 도의 미션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땅 전남」으로 의미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고, 살기를 희망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지고, 물질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에서 지역이 보유한 자연환경을 발판으로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이자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충전하는 ‘생명의 힐링기지’로 발전함을 의미한다.

전남도의 비전은 활기·매력·온정의 도정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으로 정하고, 전략과 목표에 맞는 공통지표 12개와 고유지표 783개(도 35, 국 131, 과 617)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직 성과관리는 21개 실국, 95개 성과를 포함한 116개 부서이며 이중 조직 성과평가는 소방본부(4개과), 도의회사무처(10개과)를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청(2본부 5부)을 제외한 17실국, 76개 성과로 총 93개 부서를 평가하였다. 개인 성과평가는 장기교육자, 파견근무자, 공로연수자, 공석, 별도 평가부서, 평가곤란부서 근무자 등을 제외한 5급 이상 446명(실국장 20 실과장 96, 담당 330)을 평가하였다.

균형성과관리(BSC) 운영 결과 직원들의 이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컨설팅 등을 통해 도정 비전과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의 질적 수준이 높은 고도화된 우수지표 설정을 유도하였다.

성과지표와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를 연계, 상시 평가대비 체계를 마련하였고, 도정 핵심지표(투자유치, 청렴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를 전 부서 공통지표로 반영하여 일과 평가를 양립하고, 조직과 개인의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였다.

또한, 도정 우수시책, 정부 합동평가, 투자유치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실적, 중앙 단위 표창, 도지사 지시·공약사항, 재정 인센티브 결과를 균형성과관리(BSC) 평가 가감점에 반영하여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의식해 목표 달성이 용이한 단순지표 설정, 도 전략과 목표에 불부합한 성과지표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진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기존 성과지표의 경우 지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과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표 등 전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공동지표를 개발·활용하고 다양한 가감점 부여 요소를 개발·확대하여 일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 직원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성과관리(BSC)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직원 워크숍 및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며 도의 시책과 정부의 성과중심 정책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부합동 평가 지표와 연동 가능한 지표를 추가 개발하여 모든 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지표 고도화 및 지표 성격 평가를 강화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책평가팀장 서형빈, 담당자 박태완

나.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공무원 연구모임은 스스로 연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직무연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도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시책발굴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전남도청 공직자 223명이 28개팀으로 나눠 참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연구 주제별로 자료수집과 토론, 현장 조사, 세미나 등을 통해 각 팀별로 정책제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대학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서면심사에서 우수 연구결과를 도출한 9개 모임을 선정했고, 실국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에서 도정방향의 적합성과 시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심사결과 ‘전남지역 명품 지하수 발굴’을 주제로 한 “명품 지하수 판정단”이 최우수모임으로 선정됐다. “명품지하수 판정단”은 도내 지하수 수질을 조사해 명품 지하수를 선정하고 인증제 도입,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명품 지하수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통해 비교우위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갈 것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농기계를 광역단위로 공동구매해 예산절감과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예산절감 공동구매팀’과, 섬과 숲 그리고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남생태동우회’가 선정됐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자기계발은 물론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책개발팀장 박우욱, 담당자 나재영

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민선6기 이낙연 전남지사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분리·운영되었던 양 시·도 연구원을 통합하는 계획을 2014년 8월 19일 발표했다.

전남도 주관으로 통합계획을 2014년 9월 30일 수립하고, 통합조례안이 2015년 1월 16일 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양 시·도의회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5년 3월과 4월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조례안을 2015년 4월 28일 의결하였다.

양 시·도 주관으로 통합연구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2015년 6월 24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재)광주전남연구원 설립등기를 2015년 9월 8일 완료했다.

통합연구원장 선임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2차례 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초대 원장으로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하지만, 2015년 9월 22일 시·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면서 2015년 11월 11일 중도 사퇴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2015년 11월, 3차 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해 박성수 전남대학교수를 2대 원장으로 임명(2016. 1. 12)하였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 통합 취지 및 위상에 걸맞게 조직체계 정비 및 우수인력 충원 등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연구 등 지역발전의 쌍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책개발팀장 박우육, 담당자 나재영

2-3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재난·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 일몰제(5년)를 적용하고, 5개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지출부서 분리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정성을 강화해 나간다.

채무과다 단체 및 한도액 초과 발행단체는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채무관리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며,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세출 구조조정 의무화,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 또는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등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 확대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등에 선제적 대응,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인턴제 등 청년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을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지역 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예산총괄팀장 김현옥, 담당자 배성진

나.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도로, 철도, 항만 등 SOC시설이 취약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중 가장 열악하여 자체 재원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도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초부터 다각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 1월과 2월에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3회)를 개최하여 22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3월에는 2016 국고지원요청 건의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예산확보 대응방안 책자를 제작하여 각 실과에서 국회나 해당 중앙부처 국고확보 활동 시 활용토록 하였다.

2015년 3월과 4월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을 초청하여 우리 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2015년 8월에는 여·야 정책간담회, 9월에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1월에는 지역출신 예결위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차원에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150여회가 넘는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국회 예결위원 면담 등 우리 도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도와 시·군,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전남도의 국고지원 사업비로 5조 5,884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015년 예산 확보액 5조 3,247억원 대비 2,637억원(5.0%)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8년간 방치되었던 목포~보성간 남해안철도 건설(500억원) 및 송정~목포간 호남선KTX 건설(1,60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445억원) 등 대형 SOC사업이 본격 착공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표2-294> 연도별 국고현안사업비 확보액

(단위 : 억원)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확보액	43,415	48,397	52,292	58,912	64,346	70,895	71,940	62,943	63,358	53,247	55,884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국고팀장 강상구, 담당자 배준

다. 기금 재정운용의 체계적 관리

우리 도에서 관리중인 기금은 1963년 재해구호기금이 설치된 이후 2015년 12월말 현재 16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6,660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은 일반세입 세출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고 있다.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표2-295> 각종 기금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만원)

기금명	설치근거	운용 부서	조성 기간	조성 목표액	총 조성액	용 도
계(16개)					666,011	
환경보전기금	환경기본조례 제24조, 도조례	환경보전과	1899 ~ 계속	5,000	3,063	환경오염방지 및 지역환경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법 제43조, 도조례	중소기업과	1893 ~ 계속	200,000	207,428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시설확충 및 창업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조례	자치행정과	2004 ~ 계속	5,000	2,889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증진사업
한옥발전기금	한옥지원 조례	건축개발과	2006 ~ 2015	조성 완료	49,691	한옥의 보존·보급의 활성화등으로 체류형 관광자원확보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관광과	2013 ~ 2023	60,000	18,254	우수선수·지도자양성 및 체육행사지원 등 지방체육진흥도모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4조, 도조례	스포츠산업과	1995 ~ 2014	조성 완료	9,247	우수선수·지도자양성 및 체육행사지원 등 지방체육진흥도모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법 제14조	사회복지과	1963 ~ 2010	조성 완료	26,164	이재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자활지원, 노인건강 및 장애인자립기반조성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89조, 도조례	식품안전과	1989 ~ 계속	과태료 수입	9,729	식품위생 및 도민보건 향상을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도조례	여성가족정책관실	1997 ~ 계속	10,000	6,122	여권신장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조례	농업정책과	2010 ~ 2021	152,000	169,675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사업지원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도조례	친환경농업과	2006 ~ 2015	조성 완료	48,860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활성화를위한 지원사업
녹색축산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축산과	2009 ~ 2018	100,000	73,947	녹색축산 실현을위한 소요재원확보 및 지원으로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추진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자연재난과	1998 ~ 계속	3년평균 보통세 1%	20,429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긴급보수 등 재난예방활동 사업추진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농어촌진흥법 제4조, 도조례	농업기술원	1997 ~ 계속	5,000	3,728	농업인학습단체의 학습활동 및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용조례	예산담당관실	2012 ~ 계속	매년지방채상환분전입	16,785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영
통합관리기금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도조례	예산담당관	2004 ~ 2016	각 기금의 여유자금	81,600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에 활용

아울러 각 기금별로 독립된 회계관직을 두되 소관 실국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실무담당사무관을 기금 출납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준한 회계장부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개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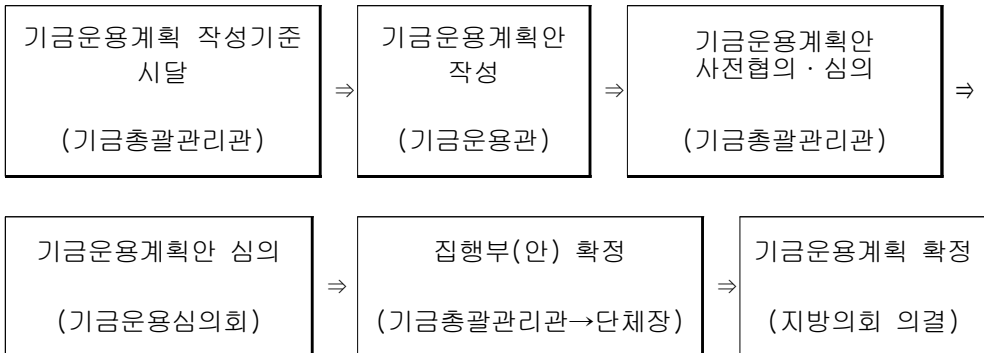
적립중인 기금이나 여유자금관리에 있어서는 그 동안 고금리 위주로 모든 금융기관에 선택적으로 예치하던 관행을 버리고 금융사고 예방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 금고·은행으로 일원화하여 자금의 안전성 유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1) 기금운용계획수립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다음 연도 총괄기금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 계획서는 기금별로 운용총칙과 수입·지출계획, 자금조성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도의회 정기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한 후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표2-296>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2) 유사기금의 통·폐합

도 관리 기금은 1963년 재해구호기금이 최초로 설치된 이래 2001년 12월에 17종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기금수가 증가됨에 따라 기금자금 운용관리에 일부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되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2000년에는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01년 9월 도 관리기금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부터는 관련 조례 정비 및 지속적인 통·폐합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 기초생활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기금
- 1지역1명품 육성기금 ⇒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회계와 통합
- 공무원교육시상기금 ⇒ 일반회계 편입
- 재난관리 + 재해대책 ⇒ 재난관리기금
- 인재육성금, 문예진흥, 국악단육성, 투자유치진흥기금 ⇒ 폐지
- 녹색축산, 농어촌진흥, 지방채상환기금 ⇒ 신설
-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폐지
-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신설 ⇒ 신설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명칭변경)

2000년 이후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297> 연도별 기금증감 현황(2000~2015년)

(단위 : 억원)

연도별	기금 수	기 금 명	총 조성액
2000	17	생활보호기금 폐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공무원교육시상 기금 신설	4,466
2001	17	변동없음	3,012
2002	12	폐지 : 재해구호, 기초생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1지역 1명품, 공무원교육시상, 재난관리, 재해대책 신설 : 사회복지, 재난재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393
2003	13	신설 : 남북교류	3,442
2004	14	기금 명칭변경(재난·재해관리 ⇒ 재난관리)	2,642
2005	14	변동 없음	3,805
2006	16	신설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한옥발전기금	3,912
2007	16	변동 없음	2,531
2008	16	변동 없음	2,515
2009	16	폐지 : 인재육성기금 신설 : 녹색축산육성기금	2,885
2010	14	폐 지 : 문예진흥, 국악단육성기금(2010. 3월 폐지) 투자유치진흥기금(2010. 12월 폐지) 신 설 : 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기금전환)	4,035
2011	15	신 설 : 지방채상환기금(2011. 12월)	4,366
2012	15	변동 없음	4,867
2013	17⇒16	신 설 : 재해구호기금, 관광진흥기금(2013.6월) 폐 지 : 사회복지기금(2013.12월말)	5,918
2015	16	기금 명칭변경 : 여성발전기금 ⇒ 양성평등기금(2015.6.30)	6,660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국고팀장 강상구, 담당자 지병훈

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내실 있는 투·융자심사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1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지침을 마련하여 도 분청 실과 및 사업소와 시군에 시달하였다.

본 지침의 내용에는 지방재정 페널티제 시행, 민자사업 투자자의 능력판단, 조건부 제외사업의 신설,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만든 지침으로 2006년도 공연, 축제 등 행사성 경비의 심사금액 확대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제외 사업의 일부확대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2007년도 심사에서는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여부, 사업관련 도 담당부서의 의견, 정부 종합계획 및 도 계획의 반영여부 등을 사전에 실무 심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심사도 병행하였다.

또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사업설명 기회 부여 및 의견청취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2-298> 연도별 투·융자심사 건수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 수	180	164	187	133	181	88	106	179	142	125	123

연도별 투자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이 증가하였고, 2004년부터는 심사 규모가 1조 7천억원을 넘어서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심사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도에는 총 187건(3조 7,845억원)을 심사하였는데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사업은 162건(1조 3,853억원)으로 전남도에서 심사하였고, 200억원 이상 사업 25건(2조 3,992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다.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규칙 개정으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도심사, 3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로 규정이 변경되어 심의건수가 중앙심사 19건, 도심사 114건으로 다소 하향되었다.

2009년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을 개정하여 전액 자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은 상급기관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전체 181건으로 중앙심사 21건(2조 3,023억원)과 도심사 160건(2조 1,477억원)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사업 심사기준액이 도는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시군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중앙심사는 11건, 도심사는 101건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2011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사성 사업 심사기준액이 도는 5억원 이상 30억 미만으로 시군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중앙심사는 4건, 도 심사는 84건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2012년도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부적정, 반려 등으로 결정된 36개 사업(8,075억원)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적정성, 자원조달 대책 등을

보완토록 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신규투자 사업중 도 심사대상은 도시군 300억원 미만에서 도는 200억원 미만, 시군은 100억원 미만으로, 중앙심사 대상은 도시군 300억원 이상에서 도는 200억원 이상, 시군은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심사 대상건수도 2012년 179건에서 2013년 142건으로 감소되었다.

2014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투자심사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투자심사 정기 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되었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2015년도 투자심사는 전체 123건 사업비 1조6495억원중 도 분청은 15건 5,265억원, 시군은 108건 1조 1230억원이며 투자심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2-299> 201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단위, 건, 억원)

구 분		계	제1차 정기	제2차 정기	제3차 정기	제4차 정기	제5차 수시
계	건수	123	36	26	21	38	2
	금액	16,495	6,330	2,540	2,643	4,836	146
적 정	건수	50	23	13	3	11	1
	금액	3,293	1,478	745	273	797	50
조건부	건수	50	10	6	13	21	1
	금액	10,284	4,320	901	1,671	3,392	96
재검토	건수	20	3	6	5	6	
	금액	2,677	532	799	699	647	
부적정	건수	1			1		
	금액	95			95		

앞으로도 투자심사제도가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로서의 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투자 심사분석을 확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각종 지방계획과 재정지원에 심사결과를 연계 반영되도록 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공기업팀장 이영춘, 담당자 이종현

마. 전남개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

전남개발공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6개 부서 축소, 정원 9명 감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해남 땅끝호텔과 한옥호텔인 영산재·오동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일염 사업 및 무안공항 면세점 사업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여수 경도리조트는 신규복합 리조트 사업 유치 및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여수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 등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감축 이행을 위해 2013년에 136%이던 부채비율을 2015년에 115%, 2017년까지 106%까지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공기업팀장 이영춘, 담당자 이상철

바. 출연기관 책임경영정착 및 경영혁신

우리 도의 경제, 문화, 복지 등의 주요정책 수요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의 역할은 날로 증대하고,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설립되어 향후 우리 도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조직·인사·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지만, 도입단계이다 보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특히, 총괄관리시스템이 없어 운영과정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총괄적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9월, 경영진단 T/F를 구성하여 35개 기관(출연기관 22개, 해양수산과학원 13개)을 대상으로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의 타당성, 기능중복 여부,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원을 7명 감축하고, 51명에 대해 증원을 보류하였으며, 기관간의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는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토록 하였다.

2015년 2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반기별로 기관의 경영혁신이행상황 보고회(2015년 5월과 11월)를 개최하여 경영혁신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1월 산하 기관장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간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마련하여 출연기관장 직위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관장의 자격조건, 선임 절차 등 출연기관장 선임제도 개선하였다. 또한,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필기시험 실시 의무화, 도 산하 출연기관의 통합 채용 공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평가로 기관장의 리더십과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되어 ‘나’등급 이상이 8개 기관(2014년 4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출연기관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및 환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임직원 비위행위 발생시 기관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출연기관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업무별 표준프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출연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

예산담당관 조재윤, 공기업팀장 이영춘, 담당자 이상철

2-4.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운영

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2015년은 국내외 경제불황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한 시기였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조 7,731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세수전망 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세수증대 유공기관 인센티브 제공과 지방세 납기내 징수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 대비 112.9%인 2조 2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내외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원전) 세율 인상, 렌터카 기업 유치와 도내 부동산¹⁾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2015년 도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1,666억원 늘어난 1조 515억원을 징수하여 개청 이래 처음으로 1조원 대를 초과하였다.

<표2-300>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액(A)			징수액(B)			징수비율(B/A)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14년	16,333	8,070	8,263	17,510	8,849	8,661	107.2	109.7	104.8
2015년	17,731	8,850	8,881	20,026	10,515	9,511	112.9	118.8	107.1

또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모범납세자 79명(법인 18, 개인 61)을

1) 나주 혁신도시, 순천 신대·오천지구, 여수 웅천지구, 광양 목성지구, 무안 남악신도시

선정·표창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선진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진부

세정담당관 배유례, 세정팀장 박용일, 담당자 김국훈

나. 체납정리 업무 추진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2014년 11월부터는 고액체납액 전담관리 징수를 위해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11월에는 차량 밀집지역(톨게이트,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3개 기관(도·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하여 5억원의 체납액 징수의 성과를 거뒀다.

그 결과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684억원이 증가된 2조 2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전년대비 77억원이 증가한 269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도는 체납액 징수 신장률 전국 1위, 道 단위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

<표2-30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도세)	징수액(도세)	결손액(도세)	체납액(도세)
2015년	20,973(10,741)	20,026(10,515)	169(36)	778(190)
2014년	18,421(9,136)	17,511(8,849)	204(114)	706(173)
2013년	16,878(7,926)	15,995(7,629)	120(38)	763(259)

<표2-302>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15년	706	173	533	269	90	179	38.1	52.0	33.6
2014년	763	260	503	192	192	137	25.2	21.2	27.2
2013년	764	264	500	229	229	151	30.0	29.5	30.2

한편,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0명에 대하여는 12월에 체납액, 성명, 주소지 등 체납자 인적사항을 관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잠재적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

세정담당관 배유례, 세무지원팀장 홍재열, 담당자 김대형

다. 세외수입 관리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하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한 중요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2015년에는 누증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재산 압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²⁾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하였으며, 「간단e납부」 시스템 운영 등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목표액보다 경상적세외수입 19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96억원을 초과 징수하였다.

2)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 단속(도, 시군, 도로공사, 경찰청 공조시스템 구축)

앞으로 도, 시·군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신규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2-303> 2015년 도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별	예산액	징수액	구성비율(%)
계	84,776	116,349	100.0
경상적 세외수입	20,885	22,787	19.6
재산임대수입	533	644	0.6
사용료수입	2,513	2,692	2.3
수수료수입	2,064	2,467	2.1
사업수입	1,427	1,409	1.2
징수교부금수입	4,303	4,850	4.2
이 자 수 입	10,045	10,725	9.2
임시적 세외수입	63,891	93,562	80.4
재산매각수입	1,215	3,354	2.9
부담금	18,095	19,289	16.6
과징금 및 과태료 등	314	744	0.6
기타수입	44,029	69,431	59.7
지난년도수입	238	744	0.6

추진부

세정담당관 배유례, 세외수입팀장 김기태, 담당자 정형태

라.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

우리 도에서는 탈루·숨은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및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매년 취약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711개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123억원(도세) 지방교육세 9억원(도세), 재산세 10억원(시군세), 기타 시·군세 22억원 등 총 164억원의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추징 유형별로는 비과세·감면한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과세전환한 세액 78억원,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신고한 세액 76억원, 누락세액 10억원 등이다.

또한 서민 경제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라남도 기업 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326개소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한 모범납세자 18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여 기업편의를 제공 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탈루·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지방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담당관 배유례, 지방소득세팀장 강대선, 담당자 김양선

마.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2015년 지방세 구제 민원은 총 31건 1,445백만원이 신청되었는데, 이의신청은 20건 1,081백만원 중 1건 22백만원이 인용되고 19건 1,059백만원이 기각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11건 364백만원의 신청중 1건 2백만원이 채택되었고 10건 362백만원이 불채택 결정 되었다.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건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지방세 심의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고,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한이 90일인데 반해 평균처리일 51일로 39일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법정처리기한 30일에서 평균처리일 25일로 5일 이상 단축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방세 구제 민원 중 납세자가 지방세를 감면받으면서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한 지방세에 대한 불복 청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신청시 비과세 또는 감면의 취지 및 추징요건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일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추진부

세정담당관 배유례, 세무지원팀장 홍재열, 담당자 정훈조

2-5. 생활밀착형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가. 자치입법의 적법성·신뢰성 강화

1953년 1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도가 공포한 자치법규는 총 7,087건으로, 이 중 조례는 총 4,002건, 규칙은 총 3,085건에 이른다. 아울러 자치법규에 준하여 제·개정 또는 폐지된 훈령은 1,345건, 예규는 1,051건에 달한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가 보유한 자치법규와 훈령·예규는 총 720건(조례 427건, 규칙 139건, 훈령 132건, 예규 22건)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조례 107건, 규칙 32건, 훈령 18건, 예규 3건 등 총 160건이 정비·운영되고 있다.

<표2-304> 2015년 자치법규 등 운영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4 보유	2015 정비 실적				2015 보유
		계	제 정	개 정	폐 지	
계	678	160	52	98	10	720
조 례	393	107	40	61	6	427
규 칙	135	32	6	24	2	139
훈 령	130	18	4	12	2	132
예 규	20	3	2	1		22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9월 15일 법제심사 임기제공무원(변호사자격 소지)을 채용하고 자치입법 심사 시스템을 개선·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자치법규를 1인이 서면으로 심사하였으나, 법무통계담당관 주재 하에 법제심사 담당 임기제공무원, 소관부서 등이 참석하는 대면심사 체제로 전환하여 법제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오류검

증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자치법규집 발간 이후,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추록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으로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의 대부분을 발간하여, 각급 부서, 도의회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다.(자치법규집 170부, 훈령·예규집 170부) 또한, 2015년에는 추록을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각종 자치법규 변동사항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도민과 네티즌들에게 IT환경에 부응하는 실시간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부

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 법제팀장 임성수, 담당자 박한석, 봉민석, 황현자

나.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업무 처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로는 변호사 13명, 대학교수 9명, 4급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전직공무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밑에 간사장과 간사를 두고 있는데 간사장은 법무통계담당관, 간사는 송무팀장이 맡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의 신속한 심리·재결을 위해 2013년 12월 2일부터 자문변호사 1명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11일부터 행정심판 허브시스템(<http://jeonnam.simpan.go.kr>)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청구에서부터 심판결과까지 알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도민은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진행상황나 재결결과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도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건수도 많이 증가되었으며 최근 몇년간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305> 연도별 행정심판청구·재결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행정심판 청구 건수			심리·재결				취하 이송	이월	인용률 (%)
	계	신규 접수	전년도 이월분	계	인용	기각	각하			
2012	420	294	126	319	43	247	29	43	58	13.5
2013	513	455	58	432	70	239	123	13	68	16.3
2014	784	716	68	617	71	58	488	23	144	11.5
2015	622	478	144	450	70	96	284	57	115	15.5

※ 2012 ~ 2015년 특정인의 정보공개청구 사건 일괄 기각 및 각하

- 2012년(183건 제외)한 인용률 31.6%), 2013년(226건을 제외)한 인용률 34.6%)
- 2014년(479건 제외)한 인용률 50.0%), 2015년(253건을 제외)한 인용률 35.0%)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의 신청을 심사하여 해당 공무원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과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밑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는데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 서기는 송무팀장이 맡고 있다.

소청심사절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소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며 결정기간이 짧은 점이 장점이다.

<표2-306> 연도별 소청심사청구·결정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소청심사 청구 건수			심사·결정				취하	이월	인용률 (%)
	계	전년도 이월분	신규	계	인용	기각	각하			
2012	37	6	31	32	15	17	-	4	1	46.9
2013	46	1	45	30	16	14	-	1	15	53.3
2014	52	15	37	42	19	23	-	1	9	45.2
2015	33	9	24	15	9	6	-	2	16	60.0

소송사무는 주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승소 및 패소사례 전파, 송무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행정처분을 유도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심급별 관리와 함께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각종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보상, 손실보상, 청구소송·교통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12월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55건이며, 종결된 101건의 승소율은 89.1%에 이르고 있다.

<표2-307> 연도별 소송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구분	피(제) 소 건 수			종 결			계류중	승소율 (%)
	계	이월	신규	계	승소등	패소		
2012	88	35	53	49	46	3	39	93.8%
2013	154	39	115	64	58	6	90	90.6%
2014	140	90	50	37	35	2	103	94.5%
2015	156	103	53	101	90	11	55	89.1%

추진부

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 송무팀장 김미순, 담당자 강동신, 선승원, 기영석, 서종국

다.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

통계의 통일성과 체계적인 보존, 각종 기본계획 수립 및 각급 기관·단체 등의 계획수립 등 급증하는 통계 수요에 폭넓게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2014년 20개 분야 364개 통계표를 시·도간 자료 비교가 쉽도록 전국 표준화방식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수록한 책자 400부를 발간·배부하여 행정·유관기관, 도서관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도정 주요 통계자료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e-Book 형태의 도정주요통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2014년 7월부터 도정 기본현황 등 12개 분야 135개 항목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도민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12일 동안 도내 22개 시군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9,53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계 소득과 소비,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 여가·문화 부문 등 11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하여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도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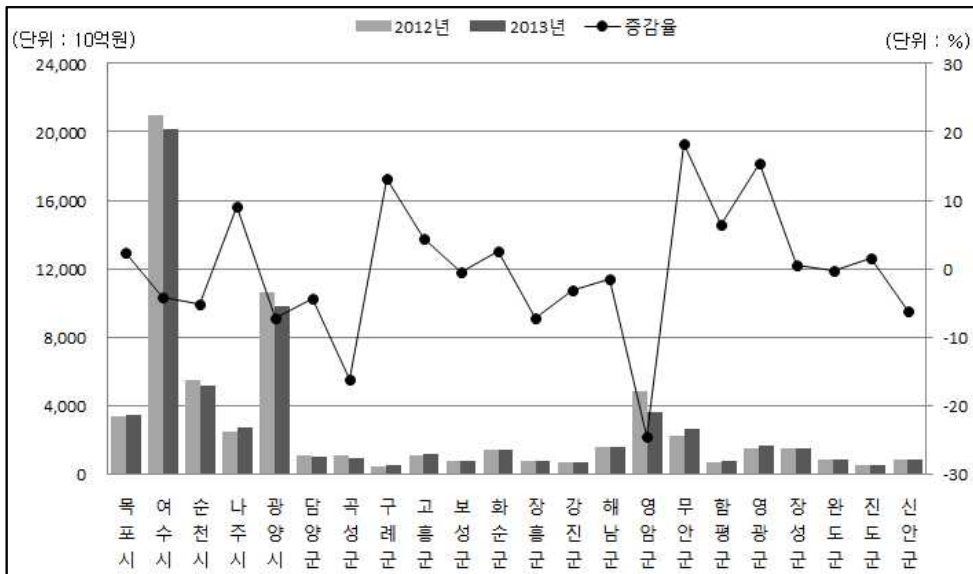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산업별 분포 및 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조사는 제22차 조사이고, 2015년 조사는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사업체 수는 142,932개로써 전국 3,812,820개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656,218명으로 전국 19,899,786명의 3.30%에 해당된다. 2013년에 비해 사업체는 6,043개(4.41%), 종사자는 32,417명(5.20%)이 각각 증가하였다.

<표2-308>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4년 말)

구 분	사 업 체 수(개)			종 사 자 수(명)		
	전 국	전 남	구성비	전 국	전 남	구성비
계	3,812,820	142,932	3.75	19,899,786	656,218	3.30
A. 농업 임업 및 어업	3,184	506	15.89	36,474	6,068	16.64
B. 광업	2,013	1,030	51.17	16,311	3,516	21.56
C. 제조업	397,171	11,885	2.99	3,957,394	112,180	2.83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840	268	14.57	70,593	6,603	9.35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7,761	468	6.03	82,216	4,831	5.88
F. 건설업	128,215	6,450	5.03	1,098,535	58,698	5.34
G. 도매 및 소매업	997,120	39,961	4.01	2,998,923	94,779	3.16
H. 운수업	378,884	10,215	2.70	1,047,788	33,573	3.20
I. 숙박 및 음식점업	703,364	29,619	4.21	2,071,581	71,922	3.47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0,664	761	1.87	533,297	6,429	1.21
K. 금융 및 보험업	41,909	1,706	4.07	698,516	20,718	2.9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1,186	2,522	1.79	494,750	9,428	1.91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376	2,064	2.14	929,655	12,283	1.3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0,785	1,503	2.96	976,789	16,976	1.7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096	1,245	10.29	648,579	36,676	5.65
P. 교육 서비스업	175,389	6,084	3.47	1,509,046	51,136	3.3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505	5,076	3.86	1,413,443	60,472	4.2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3,635	3,601	3.47	365,964	13,059	3.57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99,723	17,968	4.50	949,932	36,871	3.88

*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 조사)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모든 경제활동 주체가 1년 동안 지역 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재화, 서비스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 합이다. 전남의 2013년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62조 2,895억원으로, 2012년 64조 6,422억원 대비 2조 3,527억원 ($\Delta 3.6\%$)이 감소하였다. 경제활동별로 보면(기초가격 53조 3,636억원 기준³⁾) 농림어업은 전년에 비해 0.9%가 증가한 4조 5,723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8.6%를 차지하고, 광업·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11.7% 감소한 20조 5,230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38.5%를 차지한다. 또한 기타부문(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제외)은 전년에 비해 4.1% 증가한 28조 2,638억원으로 총부가가치의 53.0%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인 2015인구주택 총조사와 2015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국가 주요정책의 기초자료, 대학·연구기관의

3) 지역내총생산에서 생산물세(8조 9,259억원)를 제외한 금액

연구 및 민간 기업체의 경영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번 조사는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12개, 표본조사 53개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2016년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의 규모와 분포, 경영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학술연구 및 국가 간 비교 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금번 조사는 2015년 12월 1일 0시 현재,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 및 행정리를 대상으로, 4종 조사표 130개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2016년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추진부

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 통계분석팀장 정양조, 담당자 안영현, 임수열, 지병훈, 임은화

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우리 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내부공무원 6명과 민간인 각계 전문가 23명을 위촉하여 29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규제개혁 위원회를 발족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함양 교육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선 담당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도 누리집에 행정규제개혁 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 주요 성과로는 시·군 공무원 마인드 함양 및 지침시달 교육 5회 2,463여명, 워크숍 2회 12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 소관 법령 중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156건을 발굴 건의하여 그 중 중앙부처에서 14건(일부수용 포함)을 수용하고 9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관련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문화관광, 해양수산, 일반행정, 보건복지, 산림, 교통분야 등 11대 분야 552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였다.

이처럼 우리 도는 기업 및 투자자,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추진부

법무통계담당관 최우식, 규제개혁팀장 김현미, 담당자 김현수, 강재훈

마. 고객맞춤형 행정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국정운영의 전 분야에 적용 및 확산시킴으로서 국가발전의 추동력 확보와 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는 청구전에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정보공표제도,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공공기관에서 직접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 등 3가지 분야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에서는 2014. 3월부터 도 및 여수시·광양시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공공데이터를 도 누리집 및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공개하였다.

2015년 3월 원문정보공개율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4년 전국 13위(57.7%)에서 전국 1위(78.8%)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주요정책정보,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사전정보공표목록을 459개에서 600개로 확대 공개하였으며, 주차장,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무인민원 발급정보, 무료급식소 등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22개분야 개방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0월 모바일 앱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민원인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는 2012년 93.7%에서 2015년도에는 97%까지 끌어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다.

<표2-309> 민원인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연도별 처리현황

(2015. 12월말현재)

구 분	계	처 리 현 황				취하 등 기 타	공개율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15년	1,780	822	663	129	30	958	96.4%
2014년	1,272	637	547	68	22	635	98%
2013년	1,171	574	472	71	31	597	94.6%
2012년	987	555	486	34	35	432	93.7%

앞으로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개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은 물론 도정참여를 위해 행정정보공개자료 확대와 원문정보공개율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사전정보공표목록 및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로 도민에게 유용한 맞춤형 행정정보공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할 방침이다.

추진부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기록팀장 박해주, 담당자 윤창숙

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화기반 확대

지식정보사회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발표된 정부3.0 전략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국민들과 소통·협력하는 플랫폼 정부를 의미하며, 누구나 공공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정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모두가 정책결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수립을 위해 2015년 상반기에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이용객 행태 및 교통활용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권, 관광, 교통 등 전남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KTX 이용객들의 방문 목적, 이동 및 소비패턴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공공이 보유한 교통 관련 데이터, 민원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유동인구 데이터, 카드매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이 분석은 전남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한 것으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익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과제발굴 및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가 정책 수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진부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지역정보팀장 고보영, 담당자 임선양

사.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특산물 소개·마을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만들어 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확보 및 수익창출로 농어촌마을을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고 성공 가능성이 많은 마을을 선정, 국비(행정자치부)와 지방비(도비, 시군비)를 투자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에 358개 마을이 조성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49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2015년까지 638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2-310> 정보화마을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이전
계	52,974	7,181	7,050	6,076	32,667
특산품	49,498	6,641	6,581	5,681	30,596
체형	3,476	540	469	395	2,072

2016년에는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특산품 특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자상거래나 농어촌체험이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부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지역정보팀장 고보영, 담당자 이유지

아.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

1)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사업은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여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5년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10개소,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3개소, 다문화 정보화 교육기관 2개소를 선정·지원하여 총 5,988명(목표대비 197%)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2-311> 연도별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2,598명	2,813명	4,777명	4,486명	4,679명	4,379명
고령층	947명	1,419명	1,853명	1,719명	1,537명	1,326명
다문화	-	-	219명	305명	253명	283명
합 계	3,545명	4,232명	6,849명	6,510명	6,469명	5,988명

앞으로도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스크린리더기,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및 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신청·접수를 받아 2015년 11월 총 36종 289대(목표대비 120.4%)를 보급 완료했다.

<표2-312> 연도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39명	317명	254명	289명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은 점자정보단말기 및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의 보급대수를 늘리는 등 장애인들의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3) 중고PC 보급사업 추진

중고PC 보급 사업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PC를 수집·정비하여 PC를 필요로 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고령자 및 고아원,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무료 보급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 중고PC는 펜티엄Ⅳ 3.0GHZ, RAM 2GB, HDD 250GB, LCD 모니터 17인치로서 총 785대를 보급하였다.

<표2-313> 연도별 중고PC 보급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21대	938대	850대	785대

<표2-314> 2015년 중고PC 보급 세부내역

구 분	보급대상 분류	선정현황	비 고
	합계	785	
개 인	소계	494	
	장애인	141	
	기초 수급권자	182	
	국가유공자	6	
	다문화가정	79	
	북한이탈주민	27	
	한부모가정	34	
	소년소녀가장	1	
	기타	24	
단 체	소계	291	
	국가유공단체	2	
	종합사회복지시설	130	
	아동시설	42	
	노인시설	2	
	북한이탈주민센터	10	
	다문화시설 등	105	

앞으로도 중고PC 보급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보급사양의 상향화 등을 추진하여 보급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추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보편화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교육은 「전라남도 스마트 쉽 센터」를 주축으로 한 4개의 상담협력기관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 센터를 연결하여 2015년 총 36,414명(목표대비 116%)에 대한 예방교육과 110명에 대한 맞춤형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해 3회에 걸쳐 참여형 마당극을 공연하였다.

또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상담기법 및 실습 교육을 실시, 전문 상담인력을 양성하였다.

앞으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추진부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지역정보팀장 고보영, 담당자 박동훈, 박성열

자.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 정보, 방범, 주차, 재난·재해, 초등학교 등에 분산 운영중인 CCTV 시설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시·군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에 걸쳐 국·도·시·군비 264억원을 투입하여 22개 시·군에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14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검거 등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6년 2개 시·군, 2017년까지 나머지 6개 시·군에 구축할 계획이다.

<표2-315>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연도	구분 대상 개소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구축기관)
		계	국 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합계	22	26,400	13,200	3,960	9,240	
2011년	2	2,700	1,350	360	990	여수, 장성
2012년	2	2,510	1,105	294	1,111	광양, 신안
2013년	1	1,105	477	134	494	무안
2014년	5	5,024	2,512	647	1,865	순천, 나주, 구례, 장흥, 영암
2015년	4	3,672	1,836	474.3	1,361.7	보성, 함평, 영광, 완도
2016년	2	2,678	1,339	360.6	978.4	목포, 화순
2017년	6	8,711	4,581	1690.1	2439.9	담양, 곡성, 고흥, 강진, 해남, 진도

추진부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통신팀장 오종희, 담당자 박성인

차.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확충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50세대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사업비 522억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시·도(시·군), 사업자(KT)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매칭펀드(1:1:2)방식으로 도내 3,2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2,463개소를 구축 완료하였다.

2017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촌지역에서도 원격의료·교육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 등이 가능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2-316>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확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구분 연도	전체 (공동구축)	소요 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계	국비	지방비	KT	
합 계	3,230 (1,894)	52,249	13,062	13,062	26,125	3,230 (공동1,894 + KT자체1,336)
2010년	103	1,508	377	377	754	
2011년	104	1,500	375	375	750	
2012년	116	1,676	419	419	838	
2013년	165	2,108	527	527	1,054	
2014년	248	4,140	1,035	1,035	2,070	
2015년	391	7,216	1,804	1,804	3,608	2015년까지 KT 자체구축(1,336개소)
2016년	369	8,206	2,051.5	2,051.5	4,103	잔여 398 개소 2017년 사업추진
2017년	398	21,101	5,275	5,275	10,551	



정보화담당관 문형석, 정보통신팀장 오종희, 담당자 박성인

3.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

가. 도지사과 도민과의 대화

시군의 현안업무 청취, 지역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초에 도지사가 직접 시·군을 방문하는 「도지사과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도민과의 대화는 3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22일간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일 1시·군 방문계획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총 5,450명으로 22개 시·군의 시장·군수, 도의원 및 시·군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장, 언론인, 주민대표 등이 초청되었다.

2015년은 민선6기의 첫 번째 대화로써 지역의 지도자와 도민이 도정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였으며, 도민들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대화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시·군의회의, 기자실 방문, 오·만찬 생략, 초청자의 다양한 자리 배치 등 관행적인 형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현안사업장,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기존의 도민과의 대화와 차별성있게 추진하였다.

《최근 도민과 대화 현황》

- 2012년 : 2012. 1. 27. ~ 6. 8.까지(기간 중 18일간)
- 2013년 : 2013. 2. 19. ~ 4. 3.까지(기간 중 16일간)
- 2014년 : 미실시, 민선6기 출범으로 9월부터 수시 현장방문 대체

2015년도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시·군 현안건의 76건 4,167억원, 현안사업 현장에서 7건 61억원, 주민건의 272건 43억원 등 총 355건 4,271억원의 건의를 받았다.

시·군 현안 및 주민의 건의에 대하여 23개 사업 44억원의 사업비를 균등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

<표2-317> 시·군 현안사업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	0	44	44	44	44
지 원 기 준	사업비 미확보	시·군별 2억원	평가, 차등지원 (1~3억)	평가, 차등지원 (1~3억)	시·군별 2억원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행정팀장 박환주, 담당자 황의철

나. 월례 경제대화 개최

월례 경제대화는 매월 경제 이슈를 정하여 법령과 정부 정책의 변화, 국내외 시장상황, 우리 도 정책방향, 업계의 현황과 고충 등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지역민들의 경영·경제 마인드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경제관련 전문가 특강, 기업인의 성공사례 발표, 정부 및 도 정책 동향 설명,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되었고, 2015년 1월, 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의 특강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회를 개최한 결과 총 2,200명이 참가하였다.

추진부

정책기획관 김명원, 정부3.0팀장 주상현, 담당자 김민준

다.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도와 시·군 간 상호협력 강화로 상생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생협력 행정은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로써 매년 초에 실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군의 어려운 재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군 행정지원담당관제」 운영이다. 도 본청 국장급 11명, 과장급 22명 등 총 33여명을 22개 시·군별로 행정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I, 수해 및 폭설 등 당면현안이 발생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도 차원의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운영이다. 이는 국정과제 및 도정의 당면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2015년에 총 46회 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중앙-도-시·군간 긴밀한 협의·협력기능을 담당했다.

네 번째는 「도-시·군 정책간담회」 개최이다. 시·군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 및 건의 등 시·군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중인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행정팀장 박환주, 담당자 황의철

라.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

전라남도는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검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남북교류사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땅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땅끝협력은 한반도의 남쪽 땅끝인 전라남도과 북쪽 땅끝인 함경북도 간의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사업을 의미한다.

땅끝협력사업의 추진 원칙으로는 ①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 ② 비군사적·비정치적 분야의 실현가능사업 협력 ③ 쌍방향적 교류·협력 방식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함경북도 산모, 영·유아에게 전남에서 생산된 미역과 이유식 재료 등을 제공하고,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특산물인 국내산 토종 명태를 제공받는 특산물 교류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농림어업, 의료 및 생활,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측과 접촉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지원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추진 중인 평양 빵공장 건설과 남북 여자배구 친선경기 등의 사업에 대해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교류협력기금을 2015년까지 29억원을 조성하였고, 2017년까지 목표액 50억원을 차질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행정팀장 박환주, 담당자 최유선

마.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우리 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농촌인구, 다문화 혼인·출생 비율이 높아 인권 취약계층이 많으며, 외부와 소통이 어려운 섬, 농어촌지역이 많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구제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 인권옴부즈맨 제도 및 도민 명예인권지기 내용을 추가하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다.

인권 침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상담·신고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권상담창구 ☎061-286-3113」를 설치하였다. 인권상담창구에 접수된 사례는 관련부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침해 구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해 1년에 두차례 인권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7월에는 자치행정과 내 인권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옴부즈맨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전문가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창립하고, 각 시군에서 인권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도민 명예인권지기」 101명을 위촉하여 도민의 인권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도민 명예인권지기는 생활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자치인권팀장 김기평, 담당자 김다정

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통한 손잡고 함께하는 도정 실현

우리 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도 차원의 자체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도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근로여건의 생산적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도는 2015년 6월 1일 10개년 계획의 중장기 비정규직 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 확정에 이어 7월 한달동안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400여명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카드화 하였으며, 8월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종사업무 등 기본자료 조사를 완료하여 455명의 DB구축을 마쳤다.

정규직전환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9월 22일, 공인노무사, 노조대표, 기간제 근로자 등 12명이 참여하는 실무형 TF팀을 구성해 활동하였으며, 10월 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TF팀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방문, 개별면담을 통해 정밀 진단 및 대상자 선별절차를 이행하였다. 일련의 조사·분석 및 TF팀 토론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법적 의무 전환자와 연구업무 종사자 중 10년을 경과한 자를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활동 과정에는 본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주무국장인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과정 전반을 확인하는 등 조사미흡과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TF팀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10월 22일부터 4일간 TF팀 전체회의와 교차검증을 거쳐 전환대상자를 1차 선정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TF팀이 압축한 정규직 전환대상자(안)을 도지사 방침결재를 얻어 최종 확정하였고, 12월 4일 의회 보고절차를 마쳤다.

이어 총무과 인사팀이 12월 10일 금년 전환계획 대상자 29명에 대한 전환심사를 통해 26명을 확정하고, 12월 21일 인사위원회를

끝으로 채용절차를 마무리하여 12월 29일 최종 전환대상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정규직 전환 임용장과 신분증을 수여하였다.

이 같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와 공직자가 다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온정 있는 도정’의 실현이며, 포용정책이자 공동체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조직관리팀장 이광동, 담당자 조영진

사. 범 도민 지방분권 운동지원

정부가 2014년 12월에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20개 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률 제정, 예산의 뒷받침 등 실천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으로 지방이 원하는 지방분권의 성과는 얻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민선6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도, 22개 시·군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 「전라남도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분권추진 역량을 강화했다.

먼저, 도민의 분권운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내 전역에 공동체 운동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라남도 새마을회와 「범도민 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5. 8.),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지방분권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2개 시·군 순회 주민교육을 실시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정부의 영육아 보육사업, 취득세 인하 정책 등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례를 통한 교육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분권운동 참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분권 의식을 함양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지방분권협의체가 구축되어 있는 전국 8개 시도 지방분권 협의회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지방자치 실천전략 토론회」를 도내(담양)에서 개최하여 지방이 원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분권협의회간 공조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건의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분권정책 발굴을 위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라남도 분권정책 추진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도-시군, 시민사회단체간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14개의 분권과제를 담은 “전남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3개년)”을 수립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남형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자치인권팀장 김기평, 담당자 차은령

3-2. 능력과 성과 중심의 창의적 인사·조직운영

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능력과 성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일한 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행정가 육성을 위한 전문직위제도입 등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소통하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정보 공개, 인사시기 정례화, 인사운영 사전 예고, 인사고충 상담, 개인별 승진 후보자자명부 순위 공개, 승진·전보 기준 마련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와 조직의 안정적 도모로 인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1)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제도 운영

인사와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2015. 1월),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공개(2회), 사이버 “인사고충상담방” 운영,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방문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다.

승진과 전보기준 마련을 위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기준과 원칙을 사전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후보자의 “업무추진 성과기술서”를 청내 전산망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업무실적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업무실적이 있는 후보자가 승진하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2) 공정한 근무성평정 체계 확립

근무성적평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열 결정을 위하여 업무성과 위주로 평정하되 성과면담 결과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국단위 평정 시 상·하급자가 참여하는 토론식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하여 평정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평정 이후 당해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정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실과장, 실국장이 직원들이 잘한 점, 못한 점을 기록하여 평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성과 기록부”를 작성하여 평정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현행 6월말, 12월말 기준에서 2016년부터는 5월말, 11월말로 변경하여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정기인사의 승진임용에 곧바로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 인사고충상담방 운영

인사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 상담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인사고충 상담방”을 내실있게 운영한 638건의 인사고충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동안 인사고충 상담이 인사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방식에 한정되어 고충상담에 애로가 있었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본인의 고충을 쉽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나아가 별도 공간을 확보 “인사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동체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4) 인사교류활성화 추진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1:1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출입 또는 상호 파견을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계획인사교류(교환근무) 대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복귀시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류수당, 주거안정 주택보조비 등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전출입 인사교류의 경우 중앙부처와는 20명, 타시도와는 2명, 시군과는 106명을

추진하였으며, 계획인사교류(교환근무)의 경우 중앙부처와는 6명, 영호남 등 광역자치단체와는 3명, 시군과는 7명을 추진하였다.

5) 전문직위제 운영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26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11명의 책임자를 선발 전문관으로 배치하고 근무성적 평정시 종전 근평 이상을 보장하고 성과급 지급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전문관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도정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추진부

총무과장 김경호, 인사팀장 김영신, 담당자 박 호

나. 공무원단체 지원 및 직원 복리후생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동료사랑 소통 캠프, 실국대항 족구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孝·愛·和 여행 및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을 발굴·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 봉급 끝전을 모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200명에게 7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활동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 단련실과 심리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였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33개 동호회 지원과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도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추진부

총무과장 김경호, 공무원단체팀장 강성운, 담당자 이병권, 임재한, 이주리

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1) 사무량 조사 및 조직진단

국·도정 역점시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 특수시책으로 ‘사무량조사’ 시책을 도입해 매년 부서별·개인별 사무량 조사결과를 조직 및 인력운영에 활용해 왔다.

특히, 문서 생산량 중심의 정량평가는 실제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에는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정성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사무량조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사무량 조사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먼저, 직원 및 노조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무량 조사의 공감대를 확보하였으며, 성과별 전임자 면담조사, 개인별 직무기술서 작성, 야근실태조사 등 실제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조사 기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성과별 전임자 면담 조사는 문서로 판단할 수 없는 업무 실태 및 애로사항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객관성·정당성이 보장된 2015년 사무량 조사결과를 재난 안전 조직개편 및 인력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 기구 신설 및 조정

2014년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이 도정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였다면 민선 6기 2년차인 2015년은 행정변화에 맞춰 조직을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도정 철학을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조직개편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남’을 실현하며,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발굴하고 역점시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국민안전처 출범에 맞춰 각 실국에 분산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하여 재난안전전담기구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하였고, 민선6기 역점시책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중국협력, 에너지밸리전담팀을 설치하고, 도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 전담부서와 예산분석평가팀을 의회사무처에 신설하였다.

2015년 7월 재난안전조직 개편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12월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분적인 조직정비를 실시하였다.

먼저, 도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확보하고 AI 등 동물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위생사업소를 동물위생시험소로 개편하였으며, 원격지 주민들이 도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농산물검사소,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등 동부권 3개 지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고령화로 붕괴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사람 사는 여건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 추진 등을 위해 각각 마을공동체팀, 출산정책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담당’ 명칭이 실제 근무현장에서는 ‘계장’, ‘팀장’으로 불리고

있고, 기업 등과의 협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해 대내외적으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 선호도조사를 거쳐 팀제로 전환하고 직위명칭을 ‘팀장’으로 통일하였다.

이 같은 2차례 조직개편에 따라, 道 본청의 경우 9실국 48과에서 10실국 49과로 개편되어 1실 1과가 증가하고 道 전체 총 정원은 기존 4,060명에서 4,250명으로 190명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늘어나는 인력 190명은 각각 일반직 54명, 소방직 136명이다.

추진부

자치행정과장 장영식, 조직관리팀장 이광동, 담당자 조영진

라. 직원과의 즐거운 점심 대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도정철학 공유 및 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을 위해 도지사가 각 실과를 방문 하면서 직원과의 대화를 시작하였다.

2015년 상반기 시군 방문일정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6월부터 찾아가는 현장방문으로 먼저 동부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동부권 근무 직원을 격려하고 소통과 공감을 위한 자리로 “런치 토크”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이를 다시 즐거운 점심으로 이름을 바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7개 실과를 운영하였다.

추진부

총무과장 김경호, 총무팀장 고영진, 담당자 심영희

3-3. 고객지향적인 계약행정 및 재산관리

가.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계약행정 추진

우리 도에서는 도내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수주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시설물종합·학술연구·정보통신·폐기물처리·육상운송용역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0월부터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1인견적 수의계약시 도내에 실제 사업장이 없고 서류상 주소지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규 테두리 안에서 도내에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1억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관급자재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안평가기준을 개정·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1억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고용우수기업에 가점 부여로 청년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부

회계과장 유영걸, 계약팀장 유미자, 담당자 강미선

나. 찾아가는 계약심사제도 운영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 기초금액(예정가격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도에서만 운영하였으나, 민선6기 도정방향과 동부권역 행정 수요 증가에 맞춰 7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및 도 출연기관, 민간공사 요청사업 등에 대해서도 2014년 10월부터 매주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2월까지 총 41회 185건 3,328억원을 심사하여 162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4.9%)하고 동부지역민의 행정 편의제공은 물론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쳤다.

추진부

회계과장 유영걸, 계약심사팀장 임용래, 담당자 이경종

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우리 도에서 3조 8천 721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조 7천 976억원(98%)은 공공의 이익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 재산이고, 745억원(2%)은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공유재산을 단순 유지·관리하던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수단으로 그 활용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임대 수익 제고를 위해 2015년 일반재산에 대해 일제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267건을 적발 27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가능한 유휴토지 149건은 공개입찰 대부를 통해 34백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누락되어 도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58건 238백만원을 찾아 대장에 등재하고, 대부된 재산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3건은 원상복구 조치하였다.

또한 실제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7,420건은 목적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고, 보존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된 42건은 매각하여 25억원의 세수증대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

회계과장 유영걸, 재산관리팀장 이형만, 담당자 김승채

3-4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가. 현장·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문제 해결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업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3월 도 일반직 공무원 2,686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역량, 계층역량, 직무역량 등 3개 분야의 9개 역량, 27개 세부역량을 기반으로 한 ‘전남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모형’을 도출하여 실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핵심역량모형을 바탕으로, 현업 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를 교육생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개발하는 ‘역량개발교육’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의식 교육을 축소하고 사례연구, 토의 및 발표, 정책현장 탐방 등 문제해결 중심(PBL: Problem -Based Learning)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협업을 통해 당면 과제의 해결안을 도출하는 액션러닝 기법을 ‘전남비전 및 성장’ 분야 12개 과정에 도입, 강의와 현장체험을 연계하여 당면문제 해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15년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인 대통령상(섬 브랜드화 과정)을 비롯하여 강의경연(기후변화와 자연재해예방, 행정자치부장관상), 연구개발(핵심역량강화과정, 행정자치부장관상) 등 3개 분야를 모두 수상하여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2016년에도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점 운영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핵심역량 개발 교육과정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최병만, 연구개발팀장 이정래, 담당자 송승훈

나. 공직자 직무능력교육 전문성 제고

대내외적으로 공직환경이 급변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어 공직자의 직무역량은 기본이자 필수가 되었다. 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어능력, 예산회계 등 직무일반을 비롯해 법률분야, 기획분야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015년에는 직무를 공통과 전문과정으로 분리해 31개 과정 68기를 운영한 결과 3,259명이 참여하였다.

2016년은 전문교육과정을 기반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의 3개 분야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고 유사과정을 직무역량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기존 인문학 산책, 힐링명상 등 일반 소양과정은 과정별 1~2시간 내외의 과목으로 편성하고 모든 과정을 직무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도 직원을 대상으로 3개 분야(법률, 기획·홍보, 직무일반) 11개 과정의 ‘의무 이수교육과정’ 및 ‘역량강화실무과정’, ‘정책 보고서 작성’ 등 경력별 직무와 리더십을 중심으로 전문과정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성과 도출을 위해 평가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성과 향상을 위해 기수별 인원은 3~40명 내외의 소수로 운영 하되 기수를 확대하여 많은 공직자에게 직무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중앙부처, 국책연구원, 행정달인 등 분야별 실무형 전문강사를 발굴·섭외하여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교육원에서는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기본적인 업무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계획·운영할 것이며 2016년 경북과 교류를 시작으로 타기관과 업무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최병만, 교육기획팀장 김동현, 담당자 고헌영

다. 지역발전 및 청렴교육 강화

도내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청렴의식 향상 교육을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섬, 숲, 농수산업, 음식문화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교육 12개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1,21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민선6기 브랜드 시책인 섬 가꾸기, 숲속의 전남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섬과 숲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개 과정을 운영, 167명이 수료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감사 사례,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3일 이상 교육과정의 입교생 5,798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139명을 대상으로 청렴리더과정을 개설해 조직 내 소통문화 확산, 간부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에 기여했다.

추진부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최병만, 교육운영팀장 조희송, 담당자 이용우

4.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

4-1. 지역인재양성사업 내실화

가.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

1)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지역의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도민의 뜻에 따라 2008년 12월 24일 출범했다.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과 고향을 생각하는 향우 그리고 도민의 훈훈한 손길이 이어져 2015년 12월말 5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장학재단 중 두 번째로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든든한 재단이 됐다.

특히 재단은 2009년 1,092명에게 97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계속되는 시중금리 인하에도 2015년에는 1,642명에게 1,36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설립 후 9,779명에게 8,48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표2-318> 인재육성기금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액	연도별 조성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520.0	258.2	53.0	58.4	58.9	80.9	5.0	4.0	1.6
도	301.0	244.2	10.0	14.0	14.0	18.8			
시·군	117.8	13.8	19.3	32.7	40.6	5.9	3.2	0.7	1.6
기부금	101.2	0.2	23.7	11.7	4.3	56.2	1.8	3.3	

2)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장학사업 전개

재단은 지역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말에는 전남 출신 대학생 328명에게 20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총 22,780명에게 1,576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학사업 이외에도 청소년 농어촌 일자리 현장체험, 전국 음악콩쿠르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등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육성사업에 10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장학재단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표2-319> 인재육성장학금 및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명	계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장학금지원	1,642	1,364	884	739	758	625	
학자금 이자지원	791	65	463	45	328	20	

앞으로 재단에서는 520억원의 인재육성기금을 바탕으로 안정적 장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인재육성재단 후원회 정비 등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재단 운영 상황 공개 등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단 후원 내역, 사업계획 및 성과, 장학생 소식 등을 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 도민과 향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부

인재양성과장 김선호, 인재양성팀장 이귀동, 담당자 이건창, 김상진

나. 지역출신 대학생 공공학사 운영

우리 도에서는 서울 및 광주지역으로 유학을 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남도학숙과 전남학숙을 운영해 오고 있다.

<표2-320>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		기숙사 현황	수용인원
		대지	건축물		
남도학숙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6	7,797	32,577	425실	850명
전남학숙	전남 화순군·읍 지강로 679	8,782	9,916	156실	312명

남도학숙은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모아 건립하게 되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자리한 남도학숙은 1994년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1만여명의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거쳐갔으며 명실상부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다. 남도학숙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생을 위한 멘토링제(9회), 장학사업(920명, 30억원), 동기회 활성화, 해외봉사활동, 문화탐방 추진 등 다양한 면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화순 앵남리에 위치한 전남학숙은 1999년 개관해 광주 및 인접 시·군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생들의 면학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사생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숙 자체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사생의 면학지원을 위한 해외독서문화기행, 선진지 견학, 저명인사 초청특강 등 복지후생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 학생을 선발해 연간 1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사생의 취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자율회 및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인재양성과장 김선호, 인재양성팀장 이귀동, 담당자 이건창, 김상진

다. 제2남도학숙 건립

서울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있으나, 입사경쟁률이 치열하고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학숙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2014년에 광주와 전남이 '제2남도학숙 건립'을 광주전남 상생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남도학숙은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구 은평구청 별관 부지)에 건립되며, 2018. 2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제2남도학숙이 건립되면 광주전남지역 학생 604명이 추가로 입사가 가능해져 우리 지역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면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위 치 :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길 52(녹번동 86)
- 규 모 : 대지 5,960㎡, 연면적 13,717㎡(지하 1 ~ 지상 7층)
- 수용인원 : 604여명(광주 302, 전남 302)
- 사 업 비 : 498억원(광주 249, 전남 249)

추진부

인재양성과장 김선호, 인재양성팀장 이귀동, 담당자 이건창, 김상진

라. 특성화된 명문 도립대학 실현

전남도립대학교는 전라남도가 설립 운영하는 호남유일 공립대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현장 직무중심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특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이 투입되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창업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로 개편하여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은 2015년 3차년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여 국비 150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전국 137개 전문대학 중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취업보장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Uni-Tech)」육성사업은 광주 전자공고, 전남도립대, 자동차 정비업체(10개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정비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도립대학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학생이 스스로 찾아오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김기수, 관리팀장 김정주, 담당자 강인희

4-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지역은 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인구 감소로 경제는 침체되고 주민의 소득은 갈수록 낮아져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는 실정이다.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및 통·폐합 학교가 증가하고,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농간의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이농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에게는 이주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체험교육,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역중심고 육성, 인성교육 등 학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 영어체험교육 지원

농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와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체험캠프운영,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추진, 농어촌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운영,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등 농어촌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체험캠프는 생활영어와 영어권 문화를 이해시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2007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9년째를 맞이한 전라남도 영어체험캠프는 미국 대학과의 교육협력협약 체결과 도교육청과의 공동 추진

으로 우수 원어민강사 확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의 질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영어체험캠프는 중학생 972명을 대상으로 한 제1기 캠프(2015. 7. 22.~7. 31. / 10일간)와 초등학생 972명을 대상으로 한 제2기 캠프(2015. 8. 4.~8. 12. / 9일간)가 동신대학교 등 5개 대학과,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총 19일간 운영되었다. 각 캠프에서는 12개 반의 영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원어민강사와 협력교사가 협력수업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특히, 2015년 영어체험캠프 1기(중등 2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60명과, 영어체험캠프 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농어촌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22명을 선발해 진도 진도중과 석교중, 완도 보길중, 신안 지명중 등 도서벽지 22개 학교에 배치하는 등 도서벽지 농어촌 영어 공교육 강화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영어체험교실은 전라남도, 도교육청, 사군 공동 대응 투자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141개교에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라남도과 시·군, 도 교육청이 급식경비를 분담하여 2011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읍·면·도서지역 초·중학교 615개교 83,441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2015년에는 식품비 지원 구간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규모별 식품비 지원단가 구간을 세분화하여 급식 질을 개선하고 751개교 초·중학교의 153천명 학생들에게 26,07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3) 학교 공교육 활성화 지원

도농간 교육의 균형 발전 기반 조성과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 23개교를 선정하고 530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역중심고는 농어촌 지역 소도시와 군 단위 일반고등학교 중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능 등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지역 사회의 선망을 받는 학교로 도 교육청 주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및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모의고사비, 동영상강의 등 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이다.

우리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 자신감을 찾아주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 교육청과 공동협력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5개 중·고등학교에 108백만원을 지원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학교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 나를 깨우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과 실천의지 교육,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중심 수업 강화 및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 함양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바로 알게 하고 자신을 되돌아 보고 자신감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성·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무안 청계중학교 30명을 시작으로 4개교 86명의 학생들이 「인성·진로·직업 체험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잠재된 꿈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성·진로·직업 체험의 날」에는 도와 교육청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관 15명이 1일 행복 잡(Job) 코치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수습사무관과 학생 만남의 시간, 전남 바로 알기 동영상 시청, 수습사무관의 경험담 공유, 진로진학 상담, 인성교육 특강과 학생들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장래희망과 체험소감 발표 등으로 꾸며졌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기능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4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미국과 호주에 보내 어학연수, 현장실습, 현지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추진부

인재양성과장 김선호, 교육지원팀장 유영후, 담당자 황광오, 김태경, 김래선

나.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2000년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 제정 완료되어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

이후 2008. 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도지사의 역할과 책무가 규정됨에 따라 도차원의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도는 ‘함께하는 평생학습, 행복한 전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2012)’에 기초하여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2008~2009)’을 수립했다.

2009년에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규정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농어촌지역 학생진로 교육, 창조적 지식리더 교육 등 2건, 2010년에 생활중국어 교육, 어르신 자존감 향상 교육 등 4건의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

<표2-321> 평생학습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명 칭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지자체 조례 제정) 시·군·구 평생학습관
기능	위원회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관한 조정, 심의, 유관기관 연계 등	평생교육 실시, 관련 사업간 조정 등
	전담기구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구 성 (위원회)		의 장 : 시·도지사 부위원장 :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위 원 : 20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의 장 : 기초자치단체장 위 원 : 12인 이내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2013년에는 정부3.0 등 지식기반 시대의 도래로 학습·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 요구에 발맞춰 전라남도 비전과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했다.

2014년에는 우리 도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과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우리 도 평생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도 단위 추진기구로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도내 시·군, 각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5년에는 전라남도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구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져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시켰으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도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 도는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동력으로 평생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산재해 있는 지역내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설립목적에 충실한 책임성,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도민에게 행복과 활력을 전달하는 평생학습 허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마을 중심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자리와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

인재양성과장 김선호, 평생학습팀장 강하춘, 담당자 김수련